

매몰저장탱크 검사방법 개선 건의

● 한국LPG가스공업협회 ●

협회는 현행 매몰저장탱크에 대한 외면검사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줄 것을 산자부에 건의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2001.7.29부터 15년이상 경과된 지하 매몰 LPG저장탱크는 주위의 모래를 제거한후 피복을 벗겨 탱크 외면검사를 하도록 고시(산자부고시 제2001-12호, 2001. 1. 29)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방법은 현실과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저희 협회는 그동안 몇차례 이에대한 개선을 요청한 바 있으며, 실제로 탱크 외면의 모래를 제거한 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려하였던 여러 문제점이 사실로 확인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매몰저장탱크의 재검사방법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드리오니 긍정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몰 LPG저장탱크 검사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

□ 지하저장탱크 검사시 나타난 문제점

- 탱크박스 벽체와 탱크사이의 간격이 좁아 검사를 위한 장비 및 인력투입이 곤란하므로 검사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검사후 복구작업도 힘든 상황임
- 모래제거가 어렵고, 공간없이 완전히 다시 채우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며, 장소가 협소하여 모래를 제거한 후 보관할 장소가 없음
- 피복제거가 힘들고 재코팅이 곤란함
 - ☞ 매몰저장탱크 재검사시 탱크 외면의 코팅을 벗겨내야 하는데, 어느 부분을 벗겨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탱크 전체의 코팅을 벗긴 다음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 ☞ 작업공간이 협소해 검사후 재코팅 작업이 이뤄지기 힘들
 - ☞ 피복제거시 고압의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탱크외부에 손상을 주게 됨
- 객관적 검사방법과 절차가 없어 검사업체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실시되고 있음
- 시공절차가 복잡하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됨

☞ 4천만원 이상 소요

- 검사에 장기간 소요 ; 탱크 1기당 20여일 정도 걸림
- 외관검사시 막대한 비용(4천만원)을 투자하고 안전성을 확인한 상태에서도 매 5년마다 외부검사를 다시 한다는 것은 엄청난 영업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임
- 외관검사결과 노후 탱크일 경우 탱크를 교체해야 하나 안전거리 등 현행 법규적용 때문에 설비의 변경(용량 증설 등)이 어려운 실정임

□ 개선방안 건의사항

- 외관검사를 실시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기존 탱크와 같이 5년마다 내부검사만 받도록 하던가 아니면 외면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다만, 방식조치(외부전원법, 희생양극법 등)가 되어있는 경우 부식방지 조치가 충분히 고려된 점을 감안, 외관 검사대상에서 제외